

# 여성 가구주의 사회위험 인식과 사회적 자본\*

Social Risk Perception and Social Capital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이종희\*\*

Dept. of Consumer Science,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Jonghee

##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함의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위험 인식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20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사회적 자본, 인구 사회학적 특징, 경제적 변수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은 남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보다 컸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준법정신 및 위험대처능력과 같은 사회적 자본과 연령, 거주지역,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소득수준, 주택 유형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이 사회적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여,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들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사회 위험 인식, 여성 가구주, 사회조사, 사회적 자본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role and function of social capital in explaining social risk perception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social risk perception and its determinant factors of female-headed households using 2020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The analysis revealed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social capital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social risk. In addition, the social capital related to social safety was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social risk perception. Even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actors, the social risk perception level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was higher than among male-headed ones.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capital such as compliance with regulations or ability to cope with risk;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residential area, and health status;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level and housing type were found to affect social risk perception. Based upon the findings this study devises ways to accumulate social capital that can be obtained in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families and communities.

**Key words** :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risk perception, Social Survey, social capital

\*이 논문은 2021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64611-1).

\*\*주저자, 교신저자: 이종희(jay.jongheeleee@gmail.com), <https://orcid.org/0000-0002-0235-2689>

## I. 서론

독일의 사회학자 Ulrich Becks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현대 서구사회를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위험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진단하는 핵심개념으로 부상하였다(홍성태, 1997). 학자들은 앞으로 현대사회를 이끌 주요한 가치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안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이한우, 2007). 현대사회에서 위험은 감염병, 미세먼지 같은 신종 질병의 위협에서부터 전쟁 가능성과 같은 국가 안보 위협에 이르며,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사회에 만연해있다. 대표적인 위험들로는 범죄, 사고, 자연재해, 전염병, 식품안전, 사생활침해, 환경오염, 기후변화, 실업·고용·빈곤, 전쟁 등을 들 수 있다. Beck은 기술의 발전과 위험의 발전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하였는데, 근대산업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과학기술의 과도한 도구적 활용의 결과로 파생되어 인간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위험이 사회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홍성태, 1997).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은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에서 하나의 새롭고 지배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안전성은 유지되기 어렵다(김미숙·이상영·정진욱, 2013).

개인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에 들어서 위험의 종류는 방대하고, 복잡해졌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 욕구, 가치 규범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송해룡 외, 2012). 둘째, 위험 측정 기법들 대부분은 전문가와 개인의 위험 판단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분석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Sjöberg, 2000, 유명순, 2009 '재인용'). 셋째, 개인의 위험 인식과 관련이 있는 특성들을 잘 이해한다면 다수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의사결정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태도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제도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김미숙 외, 2013). 또한 현대사회의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위험 인식이라는 주제가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정책의 주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송해룡 외, 2012). 따라서 개인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제도적 제약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Dietz, Stern, & Guagnano, 1998).

사회 위험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일부는 여성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빈곤 혹은 범죄와 관련된 특정 위험을 분석하였다. 빈곤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로 행정안전부(2022)는 여성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여성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 가구주 가구와 비교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큰 편이며 성별 직종 분리 현상과 기업 내 유리 천정의 문제가 중첩된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하여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혜원 외(2021)는 여성 가구주가 처한 사회 위험으로 '차별과 소외', '불만과 불안'의 이종고로 보았고, 범죄와 관련된 위험은 '침입'과 '노출'에 대한 불안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영란(2006)은 전통적인 사회 위험과 달리 새로운 사회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과 가족의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가정에서의 보살핌 노동이 여성 가구주의 빈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김혜정(2015)은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단절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양극화, 근로 빈곤층 증대 등과 같은 신사회 위험에 주목하였고, 노동시장의 흐름으로는 여성 1인 가구는 신빈곤층, 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리라 예측하였다. 단, 여성 가구주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만 분류되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데, 가령 고선강(2012)은 여성 한부모 가계가 남성 한부모 가계 보다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노력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순자산, 총자산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험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내려질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위험을 합리적 혹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위험 객관주의(risk objectivism)를 따른다. 위험을 확률론에 근거하여 논리적 연산에 따라 측정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유명순, 2009). 두 번째 관점은 위험은 인간의 심리 혹은 사회, 문화적 신념 및 가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를 따르는 것이다(김영대·박관규, 2015). 위험을 인지하는 개인의 주관적 속성을 강조한다(윤진효, 2003). 이러한 관점은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둔다(김영대·박관규, 2015).

사회 구조적 속성이 변화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삶의 불안정성은 특히 여성, 청년, 저소득 가정, 고령자 등에게로 집중되어 나타났다(조권중, 2014). 일부의 보고서(서울연구원, 2017)는 도시 가구의 시민인식조사를 통하여 여성, 고령층, 단순노무직 등과 같은 집단은 도시위험에 더 취약하며, 위험에 대해 불안감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스 산업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를 가져왔고, 저출산·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와 보육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의 문제가 두드러지며 여성 가구주 가구들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의 여성 가구주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1a)의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는 664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2.3%를 차지한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2000년 18.5%와 비

교하여 13.8% p 상승하였으며, 2030년에는 35.4%, 2040년에는 37.8%로 상승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위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두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사회 위험 인식은 개인의 행복, 주관적 복지, 총체적인 만족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성 가구주 가계의 경우 인적자본이 취약하며, 빈곤 심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취약 집단으로 구분(김은지, 2013)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가구주의 행복 및 주관적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위험 인식 정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빈곤 혹은 범죄와 같은 사회 위험에만 집중하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하여, 선행연구들과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가족 자원 경영학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의 사회적 자원과 같은 가족자원관리 관련 주제를 다룬다. 본 연구가 개인의 행복, 주관적 복지, 총체적인 만족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 위험 인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가족 자원 경영학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 자원 경영학에서 중시하는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환기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리라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 위험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사는 현대인들도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된다. ‘위험’은 과거 운명이나 행운의 용어를 의미하던 위험의 의미는 대인 관계 위험, 경제적 위험 및 범죄 위험, 의료적 위험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변화를 거듭하였다(Lupton, 1999). 독일의 사회학자 Wolfgang Sofsky는 위험을 현재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장래를 어렵게 하는 불운한(misfortune) 가능성이라고 정의하였다(이한우, 2007). Renn(2005)은 위험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probability)과 부정적인 결과의 심각성(severity of adverse effects)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재앙(disaster)이나 위해(hazard)와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위험을 언급하기도 하고, ‘불확실성(uncertainty)과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e.g. 유명순, 2009).

사회 위험은 시기에 따라 크게 다니엘 벨(Daniel Bell)과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등이 주장한 후기 산업사회를 전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기 산업사회는 근대사회를 떠받

치던 산업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형이 이루어지고(김홍순, 2006), 산업사회의 집단화·규격화와 경제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하던 틀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이다(이용재, 2012). 후기산업사회 이전의 위험은 구사회적 위험이며(Taylor-Gooby, 2004),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빈곤, 노령, 질병, 산업폐해, 실업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구사회적 위험은 국가가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다수의 구성원이 두려워했던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의 복지가 위협을 받는 것이었다(김영란, 2005).

반면 후기산업사회 이후 신사회적 위험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관련되며 고용 불안정, 일 가정 양립, 보육 및 노인 부양, 환경오염 등과 관련되며, 산업화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사회 위험이다. ‘사회 위험’은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안홍순, 2006)으로 정의하고, 현재의 삶의 조건들을 위협하거나 적어도 현재의 삶의 수준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는 사건 혹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였다(서동희, 2009). 자연재해 관련 위험, 건강 관련 위험,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관련 위험, 경제생활 관련 위험 등으로 대표된다(정무권, 2012).

사회 위험과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사회 위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산업사회를 통해 개인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는 없었고, 과거와는 달리 많은 개인이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도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대의 위험은 주로 당사자의 잘못보다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란, 2005).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위험 요인을 개인이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현대에 들어와 사회 위험은 정부와 사회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서재호·이승중, 2012).

### 2. 사회 위험 인식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을 뜻하지만, 단순히 ‘위험의 존재를 안다’는 것만으로는 ‘위험을 인식한다’는 뜻을 전달하기에 미흡하다(Palmer & Sainfort, 2005). 현대사회의 위험 인식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이고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는(multi-attributed) 특성을 갖는다(Slovic, 2000). 위험을 인식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단순한 느낌(a simple sense of feeling)과 같은 감각 활동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나 판단(beliefs or judgments)과 같은 지적인 활동을 포괄하는 다소 복잡한 개념이다(Angeles, 1992). 그렇다면 사회 위험 인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명순(2009)은 위험 인식은 정책 집단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깊으므로 정책의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사회 위험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이 인지한 위험을 함

게 고려하는 양방향의 의견 교류를 거쳐야만 효과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사회 위험 인식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 위험 인식과 개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지은, 강민성과 이승중(2014)는 「2012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시위험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민의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과 같은 도시위험 인식은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을 도시 가구의 행복 하향요인(de-motivator)으로 간주하고, 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Xu et al.(2017)은 개인의 환경 위험 인식이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환경 위험을 인식할수록 주관적인 복지가 감소하였으며,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주관적 복지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이 느끼는 환경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개인의 총체적인 만족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위험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사회 위험 인식의 역할과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가령 사회 위험 인식은 정책 집단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깊으므로 정책의 측면에서도 유용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 정도 및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없는 편이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회 위험 중 빈곤과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 3. 사회 위험 인식 관련 변수

####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적자본의 개발과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원이다(Coleman, 1988). 예를 들어, 안정적인 가족 환경은 교육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술 혹은 자적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Putnam(1995)은 상호의 이익에 기여하는 조정 및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서지원, 2017). Machalek & Martin(2015)은 사회적 자본은 성별에 따라서 다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남성은 자원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은 강한 사회적 유대로 구성된 친밀한 관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얻고, 이를 통해 감정적 만족을 얻는다고 설명하였다.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적 자본을 선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White(1995)는 사회 위험 인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명선 외(2012)는 충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 안전교육과 안전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안전교육이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동진(2016)은 사회안전에 대한 개인의 인식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남지역 시민과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고, 그 결과 5점 중 평균 2.6점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안전하지 않은 원인은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관계 정부 기관의 무능, 안전법 제도의 미비, 시민의식 부족, 재난 안전 시스템 연계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안전 관련 사회적 자본을 강요하였는데, 안전 관련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 사회 전반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원(2017)은 제10차 한국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는데, 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기부 참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저소득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정 안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지은·전지혜(2019)는 2018년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타인의 준법 수준과 공공질서 준수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안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2) 인구 사회학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사회 위험 인식을 분석한 실증 연구 중 일부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 간 사회 위험 인식의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다음의 선행연구는 성별 간 사회 위험 인식의 차이를 있음을 밝혔다. 김미숙 외(2013)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불안 및 위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의 위험 중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과 관련된 7개의 위험 영역 모두에서 여성의 위험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성과 30~40대 응답자가 한국 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며, 여성을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재호

와 이승중(2012)은 6개 광역자치단체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사회 위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에 소득, 여성 인구수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안전예산과 같은 사회적 자본 요인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2006)은 전통적인 사회 위험과 달리 새로운 사회 위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과 노동가능성의 약화 그리고 가족의 보살핌 책임에 의한 고용접근 제한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특히 여성에게 지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가정에서의 보살핌은 여성 가구주의 빈곤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진단하였다. 정혜원 외(2021)는 '경기도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 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위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가구주가 처한 빈곤 문제는 '차별과 소외', '불안과 불안'의 이중고로 정리하였고, 범죄와 관련된 위험은 '침입'과 '노출'에 대한 '불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핵심은 '안전 비용의 분담'이라고 제안하였다.

일부의 연구는 사회 위험 인식과 경제적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김정연(2017)은 개인의 종사상의 지위와 계급적 지위가 위험 인식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였고,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집단일수록 사회 생활 위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은 객관적인 위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험이 자신을 피해 갈 것이라고 믿는 '낙관주의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조사는 매년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로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의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한다. 활용하는 안전 부문은 보건, 교육, 가족, 환경과 함께 짝수년마다 조사된다(통계청, 2020). 본 연구는 '안전' 부문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사회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가구주라고 응답한 18,543명이다. '안전' 부문은 위험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는데, 국가 안보,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식량 안보, 정보 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 위험, 전

반적인 사회 위험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위험에 대한 인식도 중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한 요인은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며(White, 1995; 박지은·전지혜, 2019),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연구결과(이명선 외, 2012; 임동진, 2016)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정 안전 문제를 극복한 가구의 실증 연구의 사례(e.g. 서지원, 2017; 박지은·전지혜, 2019)를 참고하여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들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특히 박지은과 전지혜(2019)는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준법 수준과 공공질서 준수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안전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경제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를(김미숙 외, 2013; 서재호·이승중, 2012; 김영란, 2006; 정혜원 외, 2021) 고찰하여,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과 경제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변수로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고, 경제학적 변수로는 가계 소득, 주택유형, 거주지역과 같은 특징들을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을 확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모형은 크게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 인구 사회학적 변수, 경제학적 변수로 구성된다.

#### 3. 변수 측정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개인이 인식하는 전반적인 사회 위험에 관한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1 = '매우 안전하다', 5 = '매우 안전하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범주가 구분된다. 종속변수의 응답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모형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 중의 하나인 일치율(percent concordant)을 활용하였다. 이 지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적합값과 실제값의 대소가 일치하는 비율을 수량화한 값으로 관측치의 모든 가능한 쌍을 고려하여 실제값의 대소와 적합값의 대소가 일치하는 쌍의 개수가 전체 쌍의 개수에서 차지하는 백분율로 계산된다. 이 값이 클수록 주어진 모형을 잘 예측하였다는 의미이다(하정철·김수진, 2015).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에 대하여 "매우 위험하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가구주의 경우 2.7%, 여성 가구주

의 경우 3.3% 정도인 것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고, “매우 위험하다”와 “위험한 편이다”로 응답한 사례를 통합하여 다항로짓 분석을 수행한 결과 percent concordant가 가장 높게 나왔다. “매우 위험하다”와 “위험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1로 간주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과 인구 사회학적 변수 및 경제학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써 선정하였다. 사회 위험과 관련된 대한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규정 준수, 신뢰 등을 통하여 측정한다(이명선 외(2012)와 준법 수준 및 위험대처능력을 활용한 임동진(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위험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준법 수준은 ‘귀하는 자신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본인 준법 수준을 측정하였고,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여 타인의 준법 수준을 측정하였다. 준법 정도는 ‘잘 지킨다’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로 구분하여, 숫자가 클수록 본인이나 타인의 준법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위험대처 능력은 긴급상황 시 전화번호 인식 코드를 인식하는지 여부, 재난긴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인식하는지 여부, 소화기 사용법을 인식하는지 여부,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방법을 인식하는지를 활용하였다. 4= 아주 잘 알고 있다, 1=전혀 모른다고 같이 4점 척도로 측정했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 .82으로 나타나 4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대상자인 ‘여성 가구주 가구’는 ‘해당 가구에 거주하면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의식주 지출 등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 가구’를 의미한다(통계청, 2021). 여성 가구주는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여성 가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통계청,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 가구’는 1인 가구 혹은 유배우 가구원을 포함한다(김성숙, 2012).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를 ‘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로 구분한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은 가구주 성별(남성, 여성) 이외에 연령(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혼인상태(미혼, 유배우, 이혼/사별/별거), 거주지역(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건강상태(좋은 편, 보통, 나쁜 편)등으로 구분하였다. 경제학적 요인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월평균 가구소득(200만원 미만, 200만원이상 및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주택유형(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직업 변수의 경우 선행연구(e.g. 김정연, 2017)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주요한 경제학적 변수 중의 하나인 가계 소득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범주가 3개 이상인 변수이므로 크래머 V 계수(Cramer's V)를 통

해 상관관계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크래머 V 계수의 절댓값이 0.2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매우 강한(very strong) 변수로 분류되는데(Akoglu, 2018), 직업 변수의 경우 크래머 v 계수가 0.37로 나타나 (df=12) 최종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반적 사회 위험 인식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은 여성 가구주이지만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추정결과가 여성 가구주의 특성인지 전체 연구 대상자의 특성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보다 사회 위험 인식을 더 높게 지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우선 모든 가구주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가구주를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여성 가구주들은 비교집단인 남성 가구주들보다 사회 위험 인식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므로, 두 번째 단계로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조사대상자는 여성 가구주이지만, 남성 가구주와의 비교를 통하여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유배우 18.6%, 이혼/사별/별거의 비율이 64.6%이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 유배우 비율이 78.1%인 것과 비교하여, 여성 가구주의 이혼/사별/별거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여성 가구주 중 50세 이상은 70% 이상이었으며, 남성 가구주 중 해당 연령대 비율(약 62.9%)보다 높았다. 가계 소득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고, 여성 가구주의 약 66.5%는 가장 낮은 월평균 소득 집단인 200만 원 미만의 소득 집단에 해당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남성 가구주의 비율(31.9%)의 2배에 달한다. 거주형태는 여성 가구주의 경우 남성 가구주의 경우보다 단독주택 혹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 가구주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49.3%). 거주지역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남성 여성 가구주 모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상태의 경우 여성 가구주 중 ‘좋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5%로 남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8,543)

변수	구분	여성 가구주 (n=5,214)		남성 가구주 (n=13,329)		X <sup>2</sup> / t
		빈도	%	빈도	%	
혼인 상태	미혼	874	16.76	1,556	11.67	18543.00 ***
	유배우	972	18.64	10,412	78.12	
	이혼/사별/별거	3,368	64.60	1,361	10.21	
연령	30세 미만	408	7.82	619	4.87	222.61 ***
	30세 이상 50세 미만	1,146	21.98	4,293	32.21	
	50세 이상	3,660	70.20	8,387	62.92	
주택 유형	단독주택	2,457	47.12	5,090	38.19	178.32 ***
	아파트	2,012	38.59	6,571	49.30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706 39	13.54 0.75	1,551 117	11.64 0.88	
소득 수준	200만 원 미만	3,465	66.46	4,249	31.88	1896.73 ***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1,146	21.98	4,910	36.84	
	400만 원 이상	603	11.57	4,170	31.29	
거주 지역	도시지역	3,664	70.27	9,574	71.83	4.44 *
	농어촌지역	1,550	29.73	3,755	28.17	
건강 상태	좋은 편이다	1,679	32.20	6,333	47.51	742.72 ***
	보통이다	1,893	36.31	5,026	37.71	
	좋지 않은 편이다	1,642	31.49	1,970	14.78	
타인 준법	잘 지킨다	2,640	50.63	6,741	50.57	2.72
	보통	1,996	38.28	5,212	39.10	
	잘 지키지 않는다	578	11.09	1,376	10.32	
본인 준법	잘 지킨다	4,139	79.38	10,059	75.47	32.19 ***
	보통이다	1,021	19.58	3116	23.38	
	잘 지키지 않는다	54	1.04	154	1.16	
	위험대처능력	1.83	0.69 <sup>a</sup>	2.09	0.56 <sup>c</sup>	47.67 ***

<sup>a</sup>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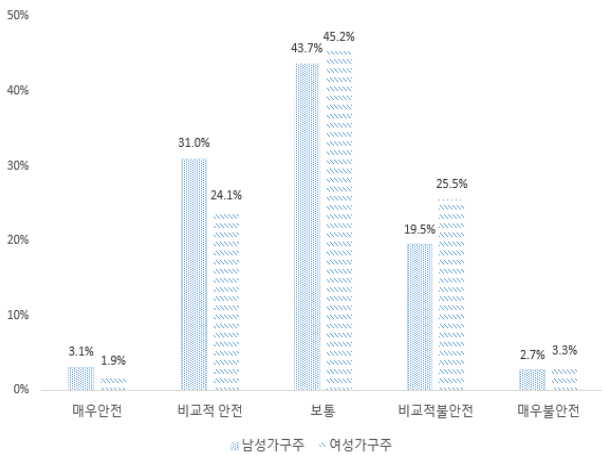
\*\*\**p* < .001, \*\**p* < .01, \**p* < .05

성 가구주의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여성 가구주 중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2%로 남성 가구주의 비율 (47.5%)보다 낮았다.

사회적 자본 관련 변수로 본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경우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남성의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 자신의 준법 인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다. 단, 타인의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위험대처능력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성 가구주의 경우 여성 가구주보다 위험대처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4점 ‘아주 잘 알고 있다’부터 1점 ‘전혀 모른다’로 문항이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대처 능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 2) 사회 위험 인식 정도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 정도를 나타낸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여성 가구주의 경우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 24.1%로 나타났으나, 남성 가구주의 경우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 31.0%이었다. 반면 ‘매우 불안전’(3.3%) 혹은 ‘비교적 불안전’(25.5%)이라고 응답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남성 가구주의 비율보다 모두 높았다( $\chi^2=150.65, p < .0001$ ).



〈그림1〉 가구주 성별에 따른 사회 위험 인식

## 2. 사회 위험 인식 영향요인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 관심 대상은 여성 가구주이지만, 여성 가구주의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이 남성 가구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후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 위험 인식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1) 전체 가구주 대상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가구주의 성별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남성 가구주보다 약 1.5배 이상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결과 사회적 자본의 대리변수인 위험대처수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준법 수준이 사회 위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 수준의 경우 평소 본인이 평소에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전반적 사회를 위험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응답자가 본인의 준법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잘 지킨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약 1.7배 위험 인식 가능성이 컸다. 또한, 타인이 평소에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타인의 준법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보다 약 3.3배 위험 인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 변수 중 위험대처수준의 경우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위험대처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를 위험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 이외에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연령, 혼인상태, 건강상태,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 이상의 경우 비교집단인 30, 40대보다 사회 위험 인식 확률이

〈표 2〉 사회 위험 인식 추정결과 (전체 가구주 대상)

	변수	구분	Coeff.	S.E.	Odds
사회적 자본	타인준법 (잘 지킨다)	보통이다	0.321	0.041 ***	1.380
		잘지키지않는다	1.214	0.056 ***	3.370
	본인준법 (잘지킨다)	보통이다	0.131	0.045 **	1.140
		잘지키지않는다	0.533	0.149 **	1.704
	위험대처능력		-0.140	0.031 ***	0.869
인구 사회학적 변수	성별 (남성)	여성	0.386	0.049 ***	1.471
	혼인상태 (유배우)	미혼	-0.262	0.071 **	0.769
		이혼/사별/별거	-0.175	0.054 **	0.839
	연령 (30세 - 49세)	30세 미만	-0.140	0.072	0.869
		50세 이상	0.240	0.034 ***	1.272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0.028	0.041	0.971
	건강상태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0.115	0.041 **	1.122
	나쁘다	0.254	0.052 ***	1.290	
경제학적 변수	소득수준 (4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0.344	0.055 ***	1.412
		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0.185	0.050 **	1.204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0.073	0.043	1.076
		연립다세대주택	0.188	0.056 ***	1.207
		기타	-0.273	0.224	0.761
	Intercept		-1.814	0.121 ***	.
	Percent Concordant		64.6		

\*\*\*  $p < .001$ , \*\*  $p < .01$ , \*  $p < .05$   
 (비교집단)



약 27% 높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위협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나쁘다’라고 응답한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보다 약 29% 사회 위험을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단, 거주지역은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경제학적 변수 중 소득수준, 주택 유형이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 위험 인식 확률이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약 41% 이상 사회 위험 인식 정도가 높았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주보다 사회 위험 인식 가능성이 컸다.

## 2) 여성 가구주 대상

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성 가구주들은 남성 가구주보다 전반적인 사회 위험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고, 추정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대리변수인 위험대처수준, 준법 수준이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전체 가구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험대처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사회 위험 인식 정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위험 인식 가능성이 컸는데,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비교집단보다 약 3.3배 사회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본인이 법을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반적 사회 상황을 위협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응답자가 본인의 준법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 비교집단보다 약 2.1배 이상 가능성이 컸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연령은 50대 이상의 경우 비교집단보다 사회 위험 인식 확률이 약 1.3배 높았다. 건강상태는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비교집단보다 약 1.3배 사회 위험을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여성 가구주의 거주지역은 사회 위험 인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농어촌지역보다 약 25% 이상 사회 위험 인식이 높았다. 경제적 요인인 가계소득의 경우 가계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위험 인식 확률이 증가하였다. 2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비교집단보다 약 1.3배 이상 사회 위험을 인식 정도가 높았다. 주택유형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 사회위험 인식 정도가 낮았다. 설문지에서 거처를 ‘기타’로 응답한 경우 정확하게 어떠한 거처의 종류인지 특징이 어렵고, 전체 응답자의 0.8%에 지나지 않아 해석상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요약하자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월

<표 3> 사회 위험 인식 추정결과 (여성 가구주 대상)

변수		구분	Est	S.E.	Odds
사회적 자본	타인준법 (잘 지킨다)	보통이다	0.418	0.072 ***	1.518
		잘지키지않는다	1.190	0.100 ***	3.288
	본인준법 (잘지킨다)	보통이다	-0.062	0.084	0.939
		잘지키지않는다	0.760	0.295 *	2.139
	위험대처능력		-0.125	0.051 *	0.882
인구 사회학적 변수	혼인상태 (유배우)	미혼	0.025	0.130	1.025
		이혼/사별/별거	-0.120	0.096	0.887
	연령 (30세 - 49세)	30세 미만	-0.036	0.124	0.965
		50세 이상	0.264	0.076 ***	1.303
	거주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0.223	0.077 **	1.249
경제학적 변수	건강상태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0.093	0.080	1.097
		나쁘다	0.290	0.090 ***	1.336
	소득수준 (4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0.291	0.121 *	1.338
		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0.213	0.123	1.238
	주택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0.113	0.075	0.894
		연립다세대주택	0.085	0.097	1.089
	기타	-1.249	0.537 *	0.287	
Intercept			-1.647	0.219 ***	
Percent Concordant			68.8		

\*\*\*  $p < .001$ , \*\*  $p < .01$ , \*  $p < .05$   
 (비교집단)

평균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50세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주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위험을 크게 인식하였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자본이 낮을수록(준법정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위험대처능력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위험을 크게 인식하였다.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혼인 상태는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V. 결론 및 함의

위험과 안전은 현대 사회의 중요 이슈이다. 최근의 신종 감염병의 위험에서부터 고령화 등 기존 사회 위험에 이르기까지 위험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위험의 관리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위험을 개인이 통제하고,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와 사회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험이 인간의 심리 혹은 사회, 문화적 신념 및 가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김영대·박관규, 2015)를 따라, 위험을 인지하는 개인의 주관적 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집단 중 하나인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 정도는 어떠한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활용하여 모든 가구주를 대상으로 로짓 분석을 하였고,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은 가구주의 사회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타인의 준법정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반면, 위험대처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위험 인식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 가계 소득, 주택 유형, 가구주 연령, 건강상태는 유의미한 변수이었다. 구체적으로 가계 소득이 낮은 가구주, 연립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50세 이상의 가구주, 건강상태가 열악한 가구주일수록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거한 제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보다 전반적으로 사회를 위험하게 인식하는 확률이 높았다.

여성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한 결과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변수는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대처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 위험 인식 정도가 감소했지만, 타인이나 본인의 준법 수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사회 위험 인식 가능성이 컸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인 주택 유형, 거주지역과 건강상태가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경제학적 변수인 가계 소득이 사회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하자면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일수록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의 사회 위험 인식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초수준의 연구로서 향후 여성 가구주를 포함한 사회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의 함의 점을 제시한다.

첫째, 위험 인식은 정책 집단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깊으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사회 위험 인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유명순(2009)의 제언에 동의하는 바이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와 사업, 공간 및 의사결정과정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인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여성가족부, 2021b)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며 추진하고 있는데, 5대 사업 중 하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지가 도시지역인 여성 가구주의 안전 유지 역량 강화, 혹은 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여성 가구주 집단이 가진 특수성의 한계를 사회적 자본의 공동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긴급상황 시 전화 번호 인식 코드를 인식하는지 여부, 재난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인식하는지 여부, 소화기 사용법을 인식하는지 여부,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방법 등과 같은 여성 가구주의 위험대처 능력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위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위험은 인간의 심리 혹은 사회, 문화적 신념 및 가치에 따라 주관적으로 재구성되기도 하므로 자신들이 처한 전반적인 사회 상황을 객관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여성 가구주 가구들이 사회 위험 및 안전과 관련된 정보 문해력 강화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확증편향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사회 역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준법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지역사회가 노력하여 안전 분야 시민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거나, 신고 의식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자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었던 전반적인 사회 위험뿐 아니라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신종 질병 관련 사회안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안전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고신강(2012). 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93-114.
- 2) 김미숙 · 이상영 · 정진욱(2013).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04.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TRKO201400012910&dlt=TRKO&rn=>.
- 3) 김성숙 (2012). 여성 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 가구 특성 연구. *젠더와 문화*, 5(1), 71-103.
- 4)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41-69.
- 5)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7.
- 6) 김영대 · 박관규(2015). 위험의 사회적 증폭 요인: 수정된 SARF를 통한 아스팔트 방사선 사례 분석. *한국정책학보*, 24(1), 225-261.
- 7) 김은지(2013). 여성 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8) 김정연(2017). 개인의 사회적 계층이 건강 및 사회생활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김홍순(2006).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대안적 계획이론의 모색. *국토연구*, 50, 19-38.
- 10) 김혜정(2015).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2), 7-40.
- 11) 박지은 · 전지혜(2019). 중 · 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9(11), 218-226.
- 12) 송해룡 · 조항민 · 이윤경 · 기원제(2012).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구조분석 및 영역 설정에 관한 연구. *분쟁 해결연구*, 10(1), 65-100.
- 13) 서동희(2009).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사각지대의 여성복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3), 320-328.
- 14) 서울연구원(2017).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https://www.si.re.kr/si\\_download/52330/14553](https://www.si.re.kr/si_download/52330/14553)
- 15) 서지원(2017). 가정안전에 대한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2), 25-50.
- 16) 서재호 · 이승중(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17) 안홍순(2006). 한국,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점검 및 개혁방안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 18) 이명선 · 최혜정 · 김미희 · 박예진(2012).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2), 93-105.
- 19) 이용재(2012). 국토계획 환경변화와 교통부문 정책. *국토연구원*, 374, 30-36.
- 20) 이지은 · 강민성 · 이승중(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21) 이한우(2007). 안전의 원칙: 위험사회, 자유나 안전이냐. 경기: 푸른숲. Sofsky, W.(2005), *Das Prinzip Sicherheit*. Fischer : 2005.
- 22) 임동진(2016).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수준과 영향요인 분석: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 89-114.
- 23) 유명순(2009). 건강 위험 인식 연구: 보건학 연구를 위한 함의. *보건행정학회지*, 19(3), 45-70.
- 24) 윤진호(2003). 기술위험의 구조와 절차. *과학기술학연구*, 3(1), 75-103.
- 25) 여성가족부(2021a).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tSn=708051](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tSn=708051).
- 26) 여성가족부(2021b).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
- 27) 조권중(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 28) 정무권(2012). 위험사회론과 사회적 위험의 역동성: 사회적 위험의 거시적 연구를 위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195-224.
- 29) 정혜원 · 노경혜 · 노혜진 · 유다영(2021).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 빈곤과 범죄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보고서* 2021-10.
- 30) 통계청(2020). 2020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 31) 통계청(2021).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
- 32) 하정철 · 김수진(2015). 기준값 변화에 따른 기업신용평가 모형 성능비교.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6), 1207-1216.
- 33) 홍성태(1997).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를 찾아서, Beck,

- U. (1992). 서울 : 새물결.
- 34) 행정안전부(2022).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7).
- 35) Akoglu, H. (2018). User's guide to correlation coefficients. *Turkish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18, 91-93.
- 36) Angeles, PA. (1992). *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philosophy*. 2nd ed. New York:HarperCollins Publishers.
- 37)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38) Dietz, T, Stern, PC, & Guagnano, G. (1998). Social structural and social-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environmental concern, *Environment and Behavior*, 30, 450-471.
- 39) Lupton D. (1999). *Risk*. New York : Routledge.
- 40) Machalek, R. & Martin, M.W. (2015). Social & behavioral sciences: A new synthesi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econd Edition)*.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social-sciences/social-capital-theory>.
- 41) Palmer CGS, & Sainfort F. (2005). Toward a new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risk perception within the genetic counseling domain. *Journal of Genetic Counseling*, 2(4), 275-294. DOI : 10.1007/BF00961576.
- 42)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43) Renn, O. (2005).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lessons for the food and food packaging industry. *Food Addit Contam*, 22(10), 1061-1071.
- 44) Sjöberg, L. (2000). Factors in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0(1), 1-11.
- 45) Slovic, P. (2000). *The Perception of risk*.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 46) Taylor-Gooby, P.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47) White, D. (1995). Application of systems thinking to risk management: A Review of the Literature. *Management Decision*, 33(10), 34-45.
- 48) Xu, J., Chi, C. S. F. & Zhu, K. (2017). Concern or apathy: the attitude of the public toward urban air pollu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20(4), 482-498. DOI : 10.1080/13669877.2015.1071869.

■ 투 고 일 : 2022년 12월 15일

■ 심 사 일 : 2023년 01월 05일

■ 게재 확정 일 : 2023년 02월 13일